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안나 '긴장'

2020~2022년 단계적 도입...정부, 교육비 부담 전가 움직임 광주교육청 年 700억 추가 부담...안전·교육사업 차질 불가피

오는 2020년~2022년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말들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안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인 초·중·고교 내진설계를 비롯한 석면교체 등 각종 안전예방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등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맨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뒤 정부와 정치권, 교육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교육청 등은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초·중·고교 내진설계·석면 교체·교육프로그램 개설·LED 교체·화장실 개선사업 등 안전예방 및 교육

사업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안이 현실화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등록금과 교재비 등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은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749억, 어린이집 658억원에 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497억, 어린이집 9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되면 광주는 1407억 중 658억, 전남은 1408억원 중 911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방침에 따라 모처럼 화해 무드에 들어간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을 놓고 또다시 갈등 양상으로 치닫될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또다시 고교 무상교육 재정부담이라는 대형 폭탄을 떠안아도 모르게 된 셈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관련 얘기가 무성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은 2000억원 가량 된다. 이 예산으로 지역 학교 각종 개선사업 등을 하는데, 만약 고교 무상교육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누리과정 예산 부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치위도 치위도 끝없는 불법 현수막 29일 광주 북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교통섬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구청 측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하루 수백장씩 수거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학생부 위주 '대입 단순화안' 8월 발표

대입 기회균형선발...로스쿨 지역인재 의무화·취약층 비율 확대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안은 8월 발표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

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으로 늘어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20%)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및 저소득층 비율 할당도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본격화돼 학교마다 전용교실 4개, 스마트패드 60개가 보급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이 확대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전 국립대로 확대하고 지방대와 지자체, 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을 통한 균형발전 거점 사업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아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신설, 지역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이 강화될 계획이다. /연남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해질 17:58
달출몰 16:35 달몰 06:04

화재조심

중국 북부에서 중부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구름많음	-6/3	보성	구름많음	-8/3
목포	눈은 뒤김	-4/1	순천	구름많음	-5/4
여수	구름많음	-5/4	영광	눈은 뒤김	-8/1
나주	구름많음	-7/3	진도	눈은 뒤김	-5/2
완도	구름많음	-4/4	진주	구름많음	-9/2
구례	구름많음	-8/3	군산	구름많음	-9/2
강진	구름많음	-6/4	남원	구름많음	-9/2
해남	구름많음	-6/3	축산도	구름많음	-1/3
장성	구름많음	-7/2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	1.0~2.0	서	0.5~1.5
	먼바다	북서	1.5~3.0	서	1.5~2.5
남해	앞바다	북서	0.5~1.5	서	0.5~1.0
	먼바다(동)	북서	1.5~2.5	서	1.0~2.0
서부	먼바다(서)	북서	2.0~3.0	북서	1.0~2.5

◇ 생활지수

☀	매우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감기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05	00:29
18:22	13:25	
01:47	08:25	
14:31	20:34	

◇ 주간 날씨

31(수)	2(목)	3(토)	4(일)	5(월)	6(화)
☁	☀	☁	☁	☀	☀
-3/6	-5/6	-5/7	-3/-1	-7/0	-6/0
					-7/2

검찰도 '미투'...여검사 前간부 성추행 폭로

지목된 前간부 "사실 아냐"

현지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A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원치 않는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 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간부 B씨는 이날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도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아차 前노조간부 역대 취업사기 수사

피해금액 20~30억 주장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직 간부가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 간부 A씨가 수억 원대의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2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사기 피해 금액은 1인당 1억원 가량

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간부직 임기가 만료된 A씨는 이후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만 수십명으로, 피해금액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프로' **맥소 '스텝'** **맥소 '크리스프'** **맥소 '스쿠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림으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움~

RIE(8-16세)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무료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자자)

◆장안본사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33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